

8. 번역에서의 '텍스트성 증가'

(“번역에서 텍스트성 증가를 위한 기고 1” 이재원 2013, *언어와 언어학* 59)

번역에서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가 유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유사함의 대상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번역의 유형이 생겨나게 된다. 예를 들어 라이스/페어메어는 그것을 '모방 (Imitation)'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언어 및 문화 코드로 이루어진 전형을 모방하되, 모방의 목적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형식과 의미의 층위에서 (즉, 텍스트에서 음성/알파벳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분들과 비언어적이고 문화적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방하는 것이다. (라이스/페어메어 2010: 82 참조).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방의 대상은 바로 '텍스트성'이다.

텍스트는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응결성 (Kohäsion), 응집성 (Kohärenz), 의도성 (Intentionalität), 용인성 (Akzeptabilität), 상황성 (Situationalität), 정보성 (Informativität),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ät)]에 부합되는 의사소통적 발화체라고 정의된다. 이 기준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그 텍스트는 통화성[의사소통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비통화성 텍스트는 비 텍스트로 취급된다. (보그랑데/드레슬러 2008: 6)

"회기법"은 구성 요소나 그 패턴을 단순히 반복 사용하는 것이고, 부분 회기법은 이미 사용한 구성 요소들을 다른 품사나 부류(가령 명사에서 동사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구조를 반복하되 그 구조에 새로운 구성 요소를 넣어 사용하는 것을 병행구문이라 하며,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환언이라고 한다. 독립된 의미 내용은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짧은 요소가 의미 내용을 전달하는 요소를 대치하는 경우는 대용형의 사용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구조와 그 의미 내용을 반복하되 표층 표현의 일부를 빼고 사용하는 것을 생략법이라고 한다. 또한 시제, 상(ASPEKT), 접속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텍스트가 구성하는 세계의 사상과 상황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의미 내용의 중요성이나 새로움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층 표현들의 배열순서가 정해지는 과정이 기능적 문장투시법이다. 문어 텍스트에서 억양도 의미 내용의 중요성이나 새로움이라는 동일한 과제를 충족할 수 있다."(7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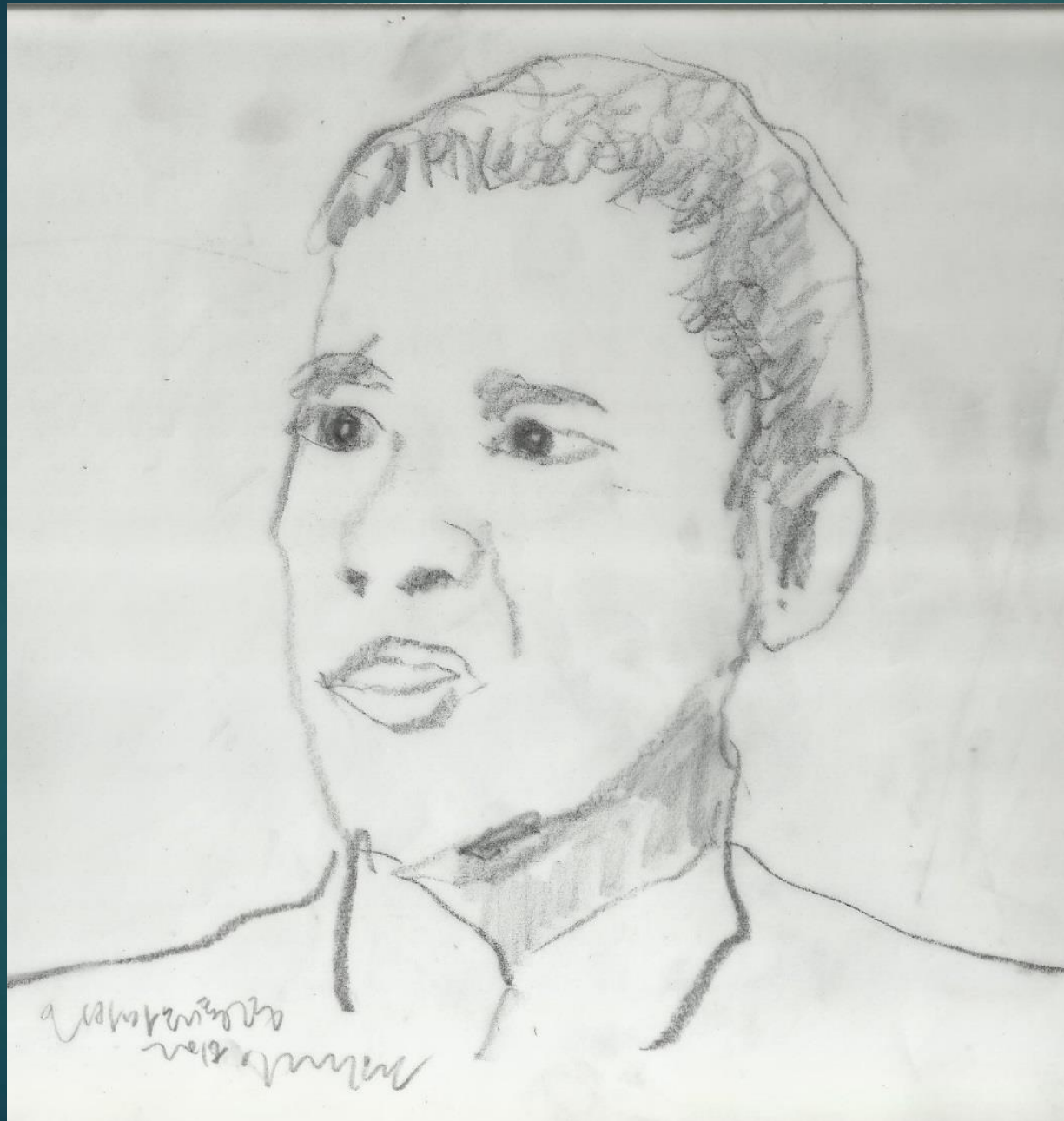
생략번역

출발 텍스트 - 영어

Most of all, I se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n all of you. For decades, this school has produced leaders -- public servants, diplomats, businesspeople -- who've helped propel the modern miracle that is Korea-- transforming it from crushing poverty to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economies; from authoritarianism to a thriving democracy; from a country focused inward to a leader for security and prosperity not only in this region but also around the world -- a truly "Global Korea."

도착 텍스트 - 한국어

저는 또한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서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대는 수십년 동안 공무원, 외교관, 경제인 등의 리더들을 배출해왔고, 이들은 한국이라는 현대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극빈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 경제 대국으로, 권위주의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내향적 국가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안보와 번영을 이끄는 리더로, 한 마디로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로 변모시켰습니다. (오바마 연설문 2012. 03. 26).⁵⁾



베이커는 수에 관한 다섯 가지의 상이 형태의 유형을
상정하는데, 이 중에서 독일어와 영어가 2)에 해당된다
고 하면 한국어의 경우는 3)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 1) 복수가 없는 경우
- ▶ 2) 복수가 필수인 언어
- ▶ 3) 선택인 언어 [한국어]
- ▶ 4) 단수, 양수, 복수가 있는 언어 (예를 들어 에스키모어)
- ▶ 5) 양수, 삼수, 복수가 있는 언어 (예를 들어 피지어)
(베이커 2005: 127 참조).

또한 한국어나 중국어 또는 일본어 화자나 저자는 문맥상 반드시 밝혀야 할 경우가 아니면 단수와 복수 중에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불가피하게 명시해야 되는 경우에도 명사 자체의 형태를 바꾸기 보다는 ‘몇몇’ 같은 단어나 ‘하나’, ‘다섯’ 등의 수사를 덧붙여서 수를 지시해준다.

출발 텍스트 -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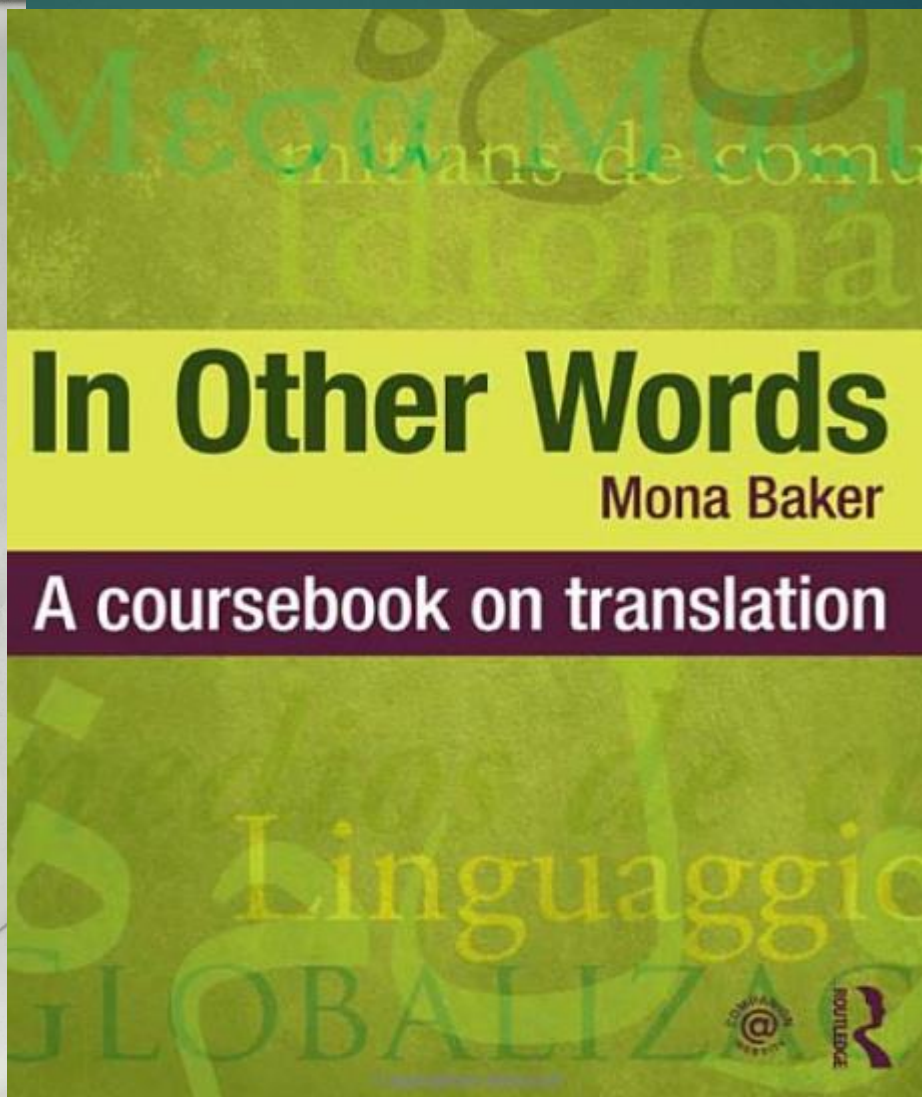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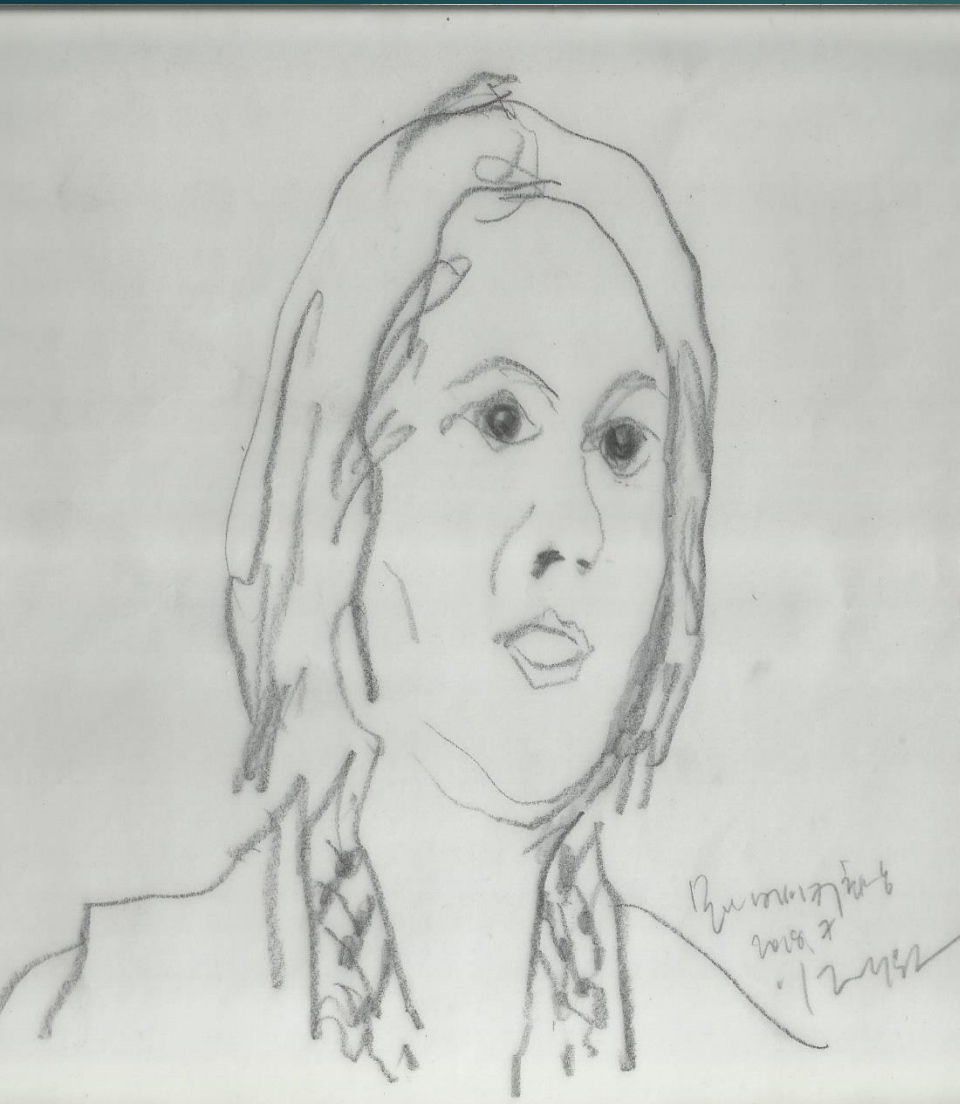
The heads of the ministries created in 1869 we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advising and assisting’ (hohitsu) the emperor, though they were to become so in 1889.

(1869년에 창설된 부처들의 대표들은 황제에게 ‘조언하고 보좌’할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으나, 1889년에 이르러서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었다).

도착 텍스트 - 일본어 (역번역)⁶⁾

The head<s> of Various ministry<ies> created in Meiji 2nd a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hohitsu’ the emperor.

(메이지 2년에 창설된 여러 부처의 대표는 황제에게 ‘조언하고 보좌’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베이커 2005: 129).



또한 도착 텍스트인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수사가 등장하면 이 수사에 의해서 수식을 당하는 명사에는 복수 표기가 생략된다.

출발 텍스트 - 영어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o our part -- securing our own material and helping others protect theirs. We're moving forward with Russia to eliminate enough plutonium for about 17,000 nuclear weapons and turn it instead into electricity.

도착 텍스트 - 한국어

미국은 앞으로도 자국의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협력하여 핵무기 1만7천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발전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오바마 연설문 2012. 03. 26).

출발언어의 대용형이 도착언어에서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출발 텍스트 - 영어

We're also using every tool at our disposal to break up black markets and nuclear material. Countries like Georgia and Moldova have seized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smugglers. And countries like Jordan are building their own counter-smuggling teams, and we're tying them together in a global network of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Nearly 20 nations have now ratified the treatie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at are at the center of our efforts. And I should add that with the death of Osama bin Laden and the major blows that we've struck against al Qaeda, a terrorist organization that has actively sought nuclear weapons is now on the path to defeat.

도착 텍스트 - 한국어

우리는 핵물질이 거래되는 암시장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루지야, 몰도바 같은 나라들은 밀수업자들이 매매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압수했고, 요르단 등의 국가는 자체적으로 밀수 단속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각국의 단속 조직을 국제적인 첩보·단속 네트워크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20개국에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있는 조약 및 국제적 파트너십을 비준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비롯해 중대한 타격을 입힌 결과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적극 시도했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조직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바마 연설문 2012. 03. 26).

위의 두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착 텍스트인 한국어에서 'we' 또는 '가' 생략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발 텍스트인 영어 텍스트에서 도착 텍스트인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대용형으로서의 주어가 빈번하게 생략될 뿐 만 아니라, 출발 텍스트에 등장했던 your나 our 같은 소유관사의 생략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출발 텍스트 - 영어

So to all the students here today, this is the Korea your generation will inherit. And I believe there's no limits to what our two nations can achieve together. For like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before you, you know that the future is what we make of it. And you know that in our digital age,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 with your smart phones and Twitter and Me2Day and Kakao Talk. (Laughter and applause.) It's no wonder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caught the Korean Wave, Hallyu.

도착 텍스트 - 한국어

여기 계신 학생들 세대가 물려받을 한국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미 양국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처럼 미래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미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국경을 초월한 대화와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류에 매료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바마 연설문 2012. 03. 26).

이러한 대용형의 생략이외에도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접속은 이미 등장한 이전의 문장과 지금 등장하는 문장 또는 지금 등장하는 문장과 이후에 등장할 문장들을 어떤 식으로든 연관 짓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바램이다. 영어의 경우 부가 (also, besides ...), 역접 (but, yet, however ...), 인과 (so, consequently, for ...), 시간 (then, next, finally ...) 등과 같은 다양한 접속의 유형들이 있지만, 한국어는 영어보다도 훨씬 세분화된 접속 표현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텍스트에 존재하는 영어 접속표현을 도착 텍스트에서 유사한 대응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하는 것은 응결성 평가를 조절하기 위한 번역가의 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아마도 번역자는 도착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정확성을 다소간 희생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출발 텍스트 - 영어

I've also seen the bonds in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like the American and Korean troops I visited yesterday along the DMZ -- Freedom's Frontier. And we salute their service and are very grateful for them.

도착 텍스트 - 한국어

양국의 제복 입은 군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자유의 최전선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만난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에게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바마 연설문 2012. 03. 26).

이와는 반대로 접속 표현이 도착 텍스트인 한국어에서 추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성질 때문인지 번역 일반의 성질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⁸⁾

출발 텍스트 - 영어

I've now been to Seoul more times than any other capital -- except for Washington, D.C., of course. This reflects the extraordinary bond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our commitment to each other. I'm pleased that we're joined by so many leaders here today, Koreans and Americans, who help keep us free and strong and prosperous every day. That includes our first Korean-American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 Ambassador Sung Kim.

도착 텍스트 - 한국어

이제는 다른 어느 나라의 수도보다도 서울을 더 많이 방문한 셈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 간의 결속과 유대가 그만큼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이토록 많이 참석해주신 것도 제게는 기쁜 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신 성 김(Sung Kim) 대사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바마 연설문 2012. 03. 26).

생략과 첨가는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이다. 출발 텍스트에서 도착 텍스트로 번역될 때 생략이 있었다면, 입장을 바꿔서 그 도착 텍스트가 출발 텍스트가 된다면 도착 텍스트에서는 어떤 것이 첨가 되어 있을 수 있다. 다음 예는 영어 출발 텍스트에서 특정한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도착 텍스트에서 첨가가 된 경우이다.

출발 텍스트 - 영어

Over the next two days, under President Lee's leadership, we'll move ahead with the urgent work of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by securing the world's nuclear materials.

도착 텍스트 - 한국어

앞으로 이틀 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전 세계 핵물질 방호 (Secure)를 통한 핵 테러 예방이라는 시급한 과제에서 진척을 이룰 것입니다. (오바마 연설문 2012. 03. 26)

출발 텍스트의 텍스트소(Textem)들을 연결해 주는 응결성 등가의 유형이 도착 텍스트의 패턴과 달라지는 경우, 생략이나 첨가 외에 대체도 있다. “캘로우(1974)는 영어와 달리 히브리어는 참여자를 밝히기 위해 담화 내내 고유명사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영어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없는 이상 이미 언급된 참여자를 지시하기 위해 대체로 대명사를 사용하는 반면, 히브리어는 참여자의 이름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발어 텍스트인 히브리어를 도착어 텍스트인 영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할 때, 번역가는 출발어 텍스트에서 반복(Rekurrenz)이라는 응결성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도착어 텍스트에서는 대용형(Proform)으로 변경해야만 두 텍스트 간의 응결성 등가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출발어에서 동일한 낱말이 반복되는 경우에 도착언어에서 상위어나 하위어로 대체해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에서는 출발 텍스트에서 동일한 어휘('scientists')로 반복 표현된 것이 도착 텍스트에서는 상위어('학자'), 하위어('기상학자'), 생략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발 텍스트 - 영어


Consider, first, the uncertainty of scientists about the extent of global warming. Despite recent advances sciences still understands little about the world's climate, a system that depends on a huge range of variables, with causation flowing in every direction. Most scientists agree that, provided other variables remain the same, big increases of carbon dioxide will boost temperatures. But the extent of the boost is widely disputed. And nobody can predict whether other variables will remain the same. Some scientists reckon that rather than just growing gradually warmer ...

도착 텍스트 - 한국어

첫째로, 지구 온난화의 범위에 관해서 기상학자들도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인과관계가 변화무쌍하고 방대한 범위의 변수에 의존하는 기호 체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여러 가지 변수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산화탄소가 크게 증가하면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는 이론은 과학자 거의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난화 촉진의 범위에 대하여는 논쟁이 분분하다. 다른 변수가 변하지 않고 그래도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는 지구 온난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 (서의석 외 1997: 38이하).

출발 텍스트인 영어의 사용설명서에 사용되는 명령형은 도착 텍스트인 독일어에서 부정사 구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비슷한 상황이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계율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Do not lean out of the window”는 “Nicht hinauslehnen”으로 번역된다. 이 경우 대체라는 응결성 등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대체의 유형들은 개별 언어마다 텍스트 종류가 가진 고유한 표현 방식과도 연관성이 깊다.

이러한 생략과 첨가에 의한 응결성 증가는 통역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인도 문화에서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표현을 독일에서는 예를 들어 ‘당케쎈’과 같이 언어화한다. 도착 수용자가 언어적인 감사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문화에서는 감사 표시가 예상되지만, 인도 문화에서는 감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는 통역사가 감사의 말을 추가한다 ... 또 다른 예로 포르투갈어에서 연설의 끝마침을 나타내는 'disse'를 독일어에서는 말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독일어에서는 ‘제로 형식’을 취한다. 통역사는 코드 전환을 하지 않고, 포르투갈 연사와는 다른 방법, 예컨대 억양을 달리 한다든가, 또는 단순히 연설을 끝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연설의 마침을 알리는 ‘정보’를 제공한다.” (라이스/페어메어 2010: 59).



일반적으로 출발 텍스트의 단락 수가 도착 텍스트에서 줄어드는 경우를 개별언어가 가진 '정보뭉치 구분'의 특성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생들에게 행한 오바마 대통령의 영어 연설문 출발 텍스트가 45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국어 도착 텍스트에서 38개로 줄어들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어가 영어보다 정보뭉치 구분에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출발 텍스트인 영어의 생산자는 애초부터 영어 텍스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출발 텍스트의 수용자와 도착 텍스트의 수용자 사이의 차이가 이런 현상을 야기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낱말이나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번역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에 대해 딜러/코르넬리우스가 “우리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이 지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종종 말한다. 겉보기에는 당연한 듯 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고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즉 의미를 가진 언어 단위와 언어 단위들의 구성에 대한 규칙들을 배우는 것” (2003: 1)이라고 반박한다면, “Feuer?”라는 독일어 텍스트 (텍스트언어학의 선구자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포르찌히 (W. Porzig)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 하나의 텍스트이다. 이재원 (2004)을 참조)가 한 번은 “불 좀 빌려주시겠어요?” 또 한 번은 “불났어요?”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지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통번역의 본질적 단위는 텍스트” (라이쓰/페어메어 2010: 25)이고, 좀더 과격하게 “번역학은 텍스트언어학의 한 분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텍스트언어학이 “의사소통적 발화체” (보그랑테/드레슬러 2008: 6)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우리들의 논의는 “언어학의 의사소통으로의 전환(kommunikative Wende)에 열성적으로 동참” (쿠스마울 2009: 14)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번역자는 반역자 (Translations and traitors/ Traduttore-traditore)”가 되지 않기 위한 조그만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